

중에도 길은 있다 (사편 38:1-22)

나눔

- 명에 벗으려고(찬송 272장, 구 330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극심한 고통을 거두어주시길 탄원합니다(1-8절).

1)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1절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4, 5절)?

4-5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 1) 선을 행하다 겪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다양한 만큼 우리 기도도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를 앞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나눠봅시다.

2. 시인은 철저하게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9-14절).

1) 시인의 고통에, 사랑하는 자와 친구, 친척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11절)? 또 대적들은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12절)?

11-12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2) 대적의 공격 앞에 시인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13, 14절)?

13-14절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눔 2) ‘상처’ 입은 이는 상처보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태도에 더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3.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죄와 고통,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15-22절).

1)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5절)?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2) 죄악을 아뢰며 슬퍼하는(18절)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16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 할까 하였나이다”

3) 대적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0절)?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나눔 3) 시인이 더욱 괴로운 것은 죄로 인한 고통보다, 그의 실족을 기뻐하는 대적 때문입니다. 의인의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그가 실족하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자신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눠봅시다.

모아, 함께 기도

삶 -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소서.

공동체 - 고통 중에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